



거인의 어깨 위에서 펼치는 도전

보성고등학교 과학발명동아리 정호근 교사 + 이정무 학생

정호근 교사는 과학발명동아리 '사이노베이터'를 '거인의 어깨 위에서 펼치는 도전'이라 말했다. 제자들이 자신의 어깨를 딛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기를 바라며 지난 23년간 동아리를 이끌어왔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동아리 활동을 해온 이정무 학생도 선생님의 노고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글 이유정 사진 홍승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창의력이 나온다

정호근 교사를 수식하는 단어는 이미 많다.

- 1998년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서 특허청장상 동상을 수상한 **저력의 교사 발명왕.**
- 과학에 관심 있는 고교생이라면 다 안다는 과학발명동아리 **'사이노베이터'의 창시자.**
- 2011년 '세계 창의력 올림픽대회'의 **한국인 최초 국제 심사위원.**
- 2021년 올해의 스승상을 받은, **존경받는 선생님.**

겸손을 더해 추린 이력이 이 정도인데, 그는 자신을 내세우는 대신 학생들의 발명품에 주목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3년간 '사이노베이터'를 거쳐 간 수많은 학생들이, 그의 개인 이력보다 더 큰 자산이자 훈장이기 때문이다. 그의 제자들은 각종 발명대회에서 늘 수상의 영예를 안고 돌아온다. 정호근 교사의 발명 교수법에는 남다른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 그는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고민하고 헤매면서 터득한 결과죠. 모든 학문은 문제 해결이 화두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인 창의력이 나와요. 세상에 대한 관찰부터 문제 제기, 해결 방법들을 스스로 고민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것, 최대한 날 것을 학생들에게 던져주고, 그들의 자율성과 방향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정호근 교사의 교수법인 셈이다. 그래서 처음엔 어렵다. 어떤 학생은 관찰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어떤 학생은 문제 제기에서 꼭 막힌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는 늘 정호근 교사가 있다. 심지어 발명품을 시연해보는 현장 속에도 그는 늘 학생과 함께이다.

"모터보트 관련 대회였어요. 대회에 나가기 전에 연습을 한 번 해볼까 싶어서, 건대 후수로 나갔죠. 그런데 오리떼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결국 시연품은 부서졌고요."

오리떼와 사투를 벌였을 스승과 제자의 모습은 어땠을까. 웃지 못할 에피소드지만 이날 학생은 배웠을 것이다. 부서지고 아파도 고민을 함께 나누는 스승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실패 속에서도 배운다

사이노베이터 동아리방 책꽂이에는 창단 연도부터 2022년도까지 선배들의 주옥같은 고민의 흔적이 꽂혀 있다. 주요 프로젝트를 엮은 '보성 메이커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여기엔 성공은 물론, 실패의 흔적까지 모두 담겨 있다. 선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참고서인 셈이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자율적으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처음엔 속으로 선생님 원망도 조금 했거든요. 그런데 '보성 메이커 프로젝트'를 보니까 어떻게 창조적으로 접근하는지를 어렵פות이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애정이 생겼어요. 문제를 진득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온전히 제 것이 되었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이정무 학생은 2022년 제7회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에서 금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두 명의 친구와 함께 팀을 이뤄 불법 어선을 단속하는 스마트 부표를 만들었다.

"선생님께서 매년 두 번 정도 사이노베이터를 거쳐 간 선배님들과의 만남을 추진해주세요. 사회에 먼저 진출한 선배들에게 듣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신세계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이정무 학생은 정호근 교사의 어깨 위에서 올해도 여러 발명대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는 또 어떤 수상내역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정호근 교사의 '이 말'이 질문의 방향이 잘못됐음을 알게 했다.

"수상은 결과이지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배운다. 그의 가르침이 있는 한 학생들의 도전은 계속된다.



66 사회에 먼저 진출한 선배들에게 듣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신세계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99

